

【P5-2】

고학력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신체활동의 비교

최지현*, 정영진.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현대의 주부는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여성의 고학력화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상승시켜 1999년 현재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은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 역할의 부담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 및 긴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성인의 73.6%가 운동을 하지 않으며 여성 중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80.2%로 건강의 주요 인자인 운동의 실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학력 주부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별로 관련 요인에 따라 신체활동 정도를 비교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유의추출 방법으로 전업주부는 대전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일정 지역에 위치한 금융기관과 대형상가에서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주부로 하였고, 취업주부는 여러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교사로 한정하여 개별 면담에 의해 조사하였다. 또한 결과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두 군의 표본 수를 연령대별로 동일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전업주부 250명, 취업주부 236명의 결과가 분석되었다. 신체활동은 일상적인 신체활동 회상법인 Baecke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작업활동지수, 여가활동지수, 운동지수의 3가지 측면을 평가하였다(5점 척도, 총 16문항). 관련 요인으로는 연령, 소득, 소득 만족도, 자녀수, 취학 전 자녀수, 스트레스, 우울, 수면시간, 만성질환 보유, 부부 역할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운동지수와 여가활동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작업지수는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요인별로 취업 여부에 따른 신체활동지수를 비교해보면 연령별로는 취업주부가 3가지 활동 모두 40대 이후군이 높아 40대 이전군에 비해 40대 이후군의 신체활동량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전업주부는 운동지수만 40대 이후군이 40대 이전군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중·고·최고 소득층에서는 운동지수와 여가활동지수에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이 운동과 여가활동지수가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더 높게 나타난 경향은 가계소득 만족도, 스트레스, 우울 수준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자녀수나 취학 전 자녀수, 부부역할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수준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만성질환 보유수가 많은 군이나 수면시간이 많은 군에서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에 운동지수와 여가활동지수의 차이가 없었고, 취학 전 자녀수가 2명 이상으로 많을 경우엔 운동지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요인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40대 이전, 저소득 수준, 취학 전 자녀가 있을 경우 운동 지수가 낮았고, 9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부부 역할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군에서 여가활동지수가 낮았다. 취업주부는 40대 이전, 우울 수준이 높은 군의 운동지수와 여가활동지수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젊은 40대 이전 군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지수와 여가활동지수가 낮았으며, 전업주부는 소득수준이 낮고 취학 전 자녀수가 많으며 수면시간이 많고 부부역할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취업주부는 우울 수준이 높을 경우에 운동과 여가활동량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